

송암교회 말씀묵상

이 달의 찬양

하나님 어린양 독생자 예수

Chris A. Bowater 올네이션스 역

하나님 - 어린양 - 독생자 - 예수 -
 날 위해 - 죽으셨 - 주님 -
 - 주홍리 선 - 그 보혈 이 - 나의 죄 를
 - 정결케 하 네 - 내 영 을 - 고 치 시 네
 송축 하 리라 - 화목케 하 선 주 -
 나의 모든 죄 - 깎아 없 게 하 - 셧 네
 송축 하 리라 - 귀하 신 어린 양 -
 모두 절 하고 - 모 두 외 치 리 라

Copyright (C) 1988 Sovereign Lifestyle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고난이 깊어질 때

찬송 312장

출애굽기 1:6-8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7)

고난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애굽총리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자, 그들은 종살이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강해지고 번성했던 고난의 역설을 조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목적은 약해지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목적을 잊지 마세요!

질문: 만약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기도: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4월 5일(화)

“권력자들의 지혜”

찬송 322장

출애굽기 1장 8절-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출1:8-10a)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라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바로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지혜는 국가의 폭력으로 백성을 향한 폭압과 적국에 대한 전쟁도 불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권력자들의 지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시임을 기억합시다.

질문: 국가의 폭력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이 있나요?

기도: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4월 6일(수)

하나님의 지혜

찬송 368장

출애굽기 1:8-22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21)

인간의 폭력과 억압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색해집니다. 억압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사람을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생명존중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비천한 산파들을 세우셔서 바로의 폭력을 비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질문: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아멘.

2022년 4월 7일(목)

잃어버린 날개

찬송 354장

신명기 7:18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독수리와 중에 뱀잡이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하늘을 날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먹이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낚아챍니다. 그런데, 이 날렵한 새가 땅에서 먹이를 먹다가 다른 동물들의 추격을 받으면 하늘을 날지 못하고, 발로 뛰며 도망을 갑니다. 당황하고 긴장하여 나는 법을 순간적으로 잊기 때문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위기를 겪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 빠질 때 믿음의 날개를 잊고, 내 힘으로 발버둥치려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 두발로 뛰기를 멈추시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 자유롭게 날아봅시다.

질문: 내가 종종 믿음의 날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기도: 주님! 나의 연약한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4월 8일(금)

선함과 지식

찬송 94장

로마서 15장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선함'과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서로에게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함과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선함과 지식이 모두 하나님의 의이고 그 의를 가르칠 능력을 그분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과 지식을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중심', '자기 의'에 갇혀 '하나님 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함과 지식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권면합시다.

질문: 나 자신 속의 선함과 지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기도: 주님, 주님이 주신 선함과 지식과 권면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4월 9일(토)

나와 나의 집안은

찬송 380장

여호수아 24:14-15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15절 하반절)

여호수아 기록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독자들은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만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열강들은 누군가를 굴복시켜 존재하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던 여호수아의 뜻은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고전15:10).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은 그 어떤 지배에도 '나'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질문: 여호수아는 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까?

기도: 주님, 그 어떤상황에도 나를 나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4월 10일(주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찬송 338장

욥기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시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사회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즉 고난 받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욥기책은 그러한 세상의 도식을 전복시킨 문학작품입니다. 고난은 의인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를 감히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분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질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시나요?

기도: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